

항페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 임이니라 (사 54:3)

캄보디아 정광수/최은희 선교사 (기도서신 35)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 드립니다. 한해 동안도
그 분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있었고 캄보디아 뿐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찬양을 받으셨던 주
이름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만을 위한 성탄과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도서신에서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을 사진 중심으로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이레약국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의 재정 자립을 위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기도하며 크고 작은 마음 상함들을 인내하며 준비해 왔는데 드디어 지난 12월 12일 12시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향후 2년 내에 자립의 기반을 닦고 오지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첫 발을 뒹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약사 자매 두 명(박지혜, 박지은)이 헌신하여 약 4개월간 이곳에 머물며 스텝들 교육과 약품 준비 등 이런저런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준비들을 진행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신실하신 그 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제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셋째 딸인 씨넌(바탐방 대학 법대 졸업)이 약국 사장을 맡아 운영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씨넌과 싸른(메니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Thoeurn Reaksa(트언 레악싸, 5세, 여, 선천성 흉부 기형)가 서울대병원에서 Rachel(라헬, 19개월, 여, 선천성 척내반죽 및 고간절탈구)이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가정교회가 세워
지고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이
시작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입

니다. 가슴뼈가 한쪽으로 튀어 나오면서 한 편으로는 안으로 말려들어 가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서 폐와 심장이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자 아이라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수술을 받아야 하겠는데 캄보디아서 할 수 없기에 한국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 김현철 성형외과 원장님, 서울대 소아 흉부외과 팀,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목사)가 서로 협력하여 이 아이의 치료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전히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개월 반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캄보디아로 귀국하여서는 한 달에 두 번씩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과정에 합류하여 신앙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험난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지금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브레이썬 마을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브레이썬 마을 가정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에서
해결할 수 없
는 선천성 장
애가 있는 라
헬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로 우연한 기
회에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섭리 하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다 그러해왔지만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이 마을을 향한 애통한 사랑의 마음과 목포 성루교회(담임: 이진구목사)와 파이린 박기정선교사를 통한 축복의 물결을 알게 되기까지 엄청난 그 분의 비밀을 체험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형편이 딱하고 보잘것없는 한 가정을 택하여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는 그 분 앞에 우리는 한 없이 작아 보일 수 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외에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소아정형외과 팀의 수술을 잘 받고 귀국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라헬 가정의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을 순회진료와 간이 진료소를 통한 보살핌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경 60-70km 내에 아무런 의료시설이 없는 저희 마을을 순회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지 주민들
에게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썸롱 마을에 무료 진료소 한 곳을 더 세워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썸롱 마을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곳에 세워진 가정교회와 함께 이 마을의 복음전도 사역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MIS(Medical Information System) 세미나를 개최하여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보라매병원의 MIS 관련 부서 팀장님들, IT 회사 사장님, 그리고 프놈펜에 있는 코사막병원 원격화상진료 팀, 헤브론병원장, 바탐방의 여러 의료인 등 50 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갖고 의료시설이 전무한 오지 마을 주민들을 섬김에 있어 현대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들을 교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MIS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의료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역들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제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선발하여 송춘명선교사와 함께 지도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씩 모이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추수철로

주민들이 모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기독교적 변혁이 점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힘겨운 부분이 있어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지치지 않고 어떤 장애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직 그 분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세요.

마음으로 품어 자식 삼은 우리 아이들 10명의 가족을 기억해 주세요



Month	Day	Topic	Amount	Amount	Amount
1)	28/08/15	DCB (Sinhon)	20.00	20.00	TSD
2)	03/08/15	DCB (Sinhon)	17.00	17.00	TSD
3)	03/08/15	DCB (Sinhon)	14.00	14.00	TSD
4)	03/08/15	DCB (Sinhon)	10.00	10.00	TSD
5)	31/08/15	DCB (Sinhon)	13.00	13.00	TSD
6)	31/08/15	DCB (Sinhon)	14.00	14.00	TSD
7)	31/08/15	DCB (Sinhon)	13.00	13.00	TSD
8)	30/08/15	DCB (Sinhon)	13.00	13.00	TCH
9)	30/08/15	DCB (Sinhon)	13.00	13.00	TCH
10)	30/08/15	DCB (Sinhon)	13.00	13.00	TCH
11)	10/10/15	DCB (Sinhon)	13.00	13.00	YBR
12)	05/11/15	DCB (Sinhon)	13.00	13.00	LIM
13)	05/11/15	DCB (Sinhon)	13.00	13.00	LIM
14)	05/11/15	DCB (Sinhon)	13.00	13.00	LIM
15)	05/11/15	DCB (Sinhon)	13.00	13.00	LIM

이 아이들이 카페를 운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성적도 아주 우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hristian Opinion Leader의 꿈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성장해 오고 있었습디만 이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십의 삼조를 떼어 십의 일조는 하나님께, 다른 십의 일조는 부모님께, 마지막 다른 십의 일조는 자신들과 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매월 통장에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대견합니다. 새벽기도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여 저녁 성경공부와 성경 읽기로 마감할 때까지 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독인

의 목소리를 내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두 손 모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로 인하여 캄보디아 백성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분을 찬양하며 감사가 충만한 나라와 족속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 뜨는데서부터 해 지는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손을 모아 주세요

1. 큰 딸 선영이의 임신에 대하여

결혼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첫째 딸(선영)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아내(최은희선교사)가 늦은 나이에 종의학 4년 과정의 힘든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토록 늦은 나이에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나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의문의 출발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충만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멋진 퍼즐을 잘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고 균형감을 잃지 않는 선교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4. 약국이 개설되었는데 이 곳이 이웃 사랑의 실천적 복음 기지가 될 수 있도록

5. 양육하고 있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장차 Christian Opinion Leader가 되기 위해 개인의 번영을 뛰어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오직 캄보디아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 2015. 12. 18 =

연락처 : 070-4028-8801/8803 (인터넷 전화) 이메일주소 : estherjireh@gmail.com(최은희)

+64-21-162-4539 (최은희선교사)

lukechung58@hanmail.net(정광수)

+855-92-566-019 (정광수선교사)

페이스북 : Esther Choi Eun Hie (최은희)

주소 : P.O.BOX 393, Battambang, Cambodia

Luke K S Chung (정광수)

후원계좌 : 외환 630-009005-061 (예금주 : 사단법인글로벌케어<캄보디아>)